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청렴결의 핸드프린팅 행사 개최

관행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공단 구현 위해 실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에서는 지난 12월 10일 공단 2층 대회의실에서 이춘기 이사장과 김재연 상임이사 및 직원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다짐 핸드프린팅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춘기 신임이사장이 추진하고 있는 “친절, 봉사, 혁신” 추진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공단 구현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전 직원의 청렴실천을 다짐하는 직원 대표(노조위원장, 여성대표)2명이 청렴실천 결의 후 임원 및 각 부서 팀장이 청렴

다짐을 위한 청렴다짐핸드프린팅과 외부 전문강사 초빙을 통한 청렴특강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제작된 핸드프린팅은 공단내에 게시하여 대내외로 청렴이미지를 제고시키기로 하였으며 전 직원 청렴서약을 통한 청렴경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사와 관련하여 “이춘기 이사장은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금번 행사를 개최하였고 구민이 신뢰하는 청렴 공단 구현을 위하여 3개 전략 5개 단위 35개 세부과제를 추진 등 청렴경영을 통하여 구민을 섬기는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개방성 및 소통성 제고 개방 소통 위원회 개최

공학박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 안전한 시설물을 다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은 지난 12월 13일 시설물 안전관리 전문공기업으로서 수탁시설물에 대한 개방성과 소통성 제고를 위한 2019년 개방·소통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인의 요람이며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근간인 한국폴리텍2대학 인천캠퍼스 산업자동화학과 학과장 등 교수진을 초빙하여 외부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하고 기술직원중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국가자격을 보유중인 직원으로 내부 위

원을 구성하였다. 개방·소통 위원회에서는 공학박사, 기술사, 지도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의 전문지식을 배우고 익혀 시설물에 접목시킴으로서 보다 안전한 시설물을 구민에게 제공할 것을 다짐하였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춘기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신규사업 추진 시 전문성을 크게 향상시켜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으로서 시설안전관리 품질을 크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